

부산의 자존심 노무현 승리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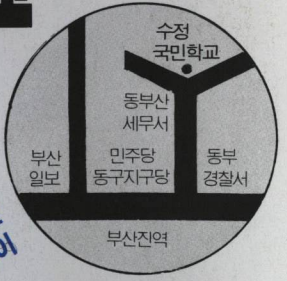
시민대회

민주당 동구지구당
정당 연설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입니다.
온 힘을 노무현에게 모아 줍시다.
그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3월 24일 바로 그날, 화끈하게
노무현을 당선 시킵시다.

3월 22일 (일) 오후 3시, 수정국민학교

노무현과, 그리고 노무현을 좋아하거나 노무현은 꼭 당선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 노무현이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동구주민, 부산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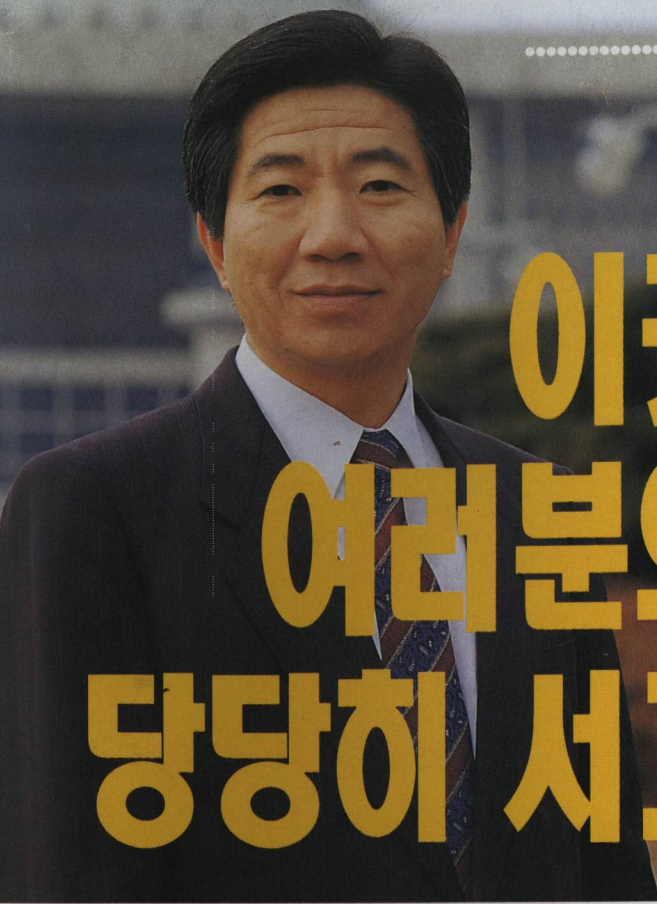
- 연륜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허삼수씨 입에서 "미안합니다" 소리를 연발케 했던 부산 중학교 출신, 새세대 정치인 **이철 의원!**
- '촛불'로 시작해 '시인의 마을'을 거쳐 이제 우리 곁에서 노래해 주는 **가수 정태훈!**
- 이른바 소장개혁파 3총사 (김정길, 노무현, 이해찬) 중 만행. 노무현의 능력을 뜻심과 영도의 **김정길 의원!**
- 김구 선생의 입실자 인두회를 끝까지 응징해서 결국 김구 선생님 묘소 앞에 무릎 꿇게 한 **권중희 선생님!**
- 그리고 노래마을 등 노무현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호 2 노무현

● 노무현 후보 선거사무소 ●
부산시 동구 수정2동 1-61 (통일다방 5층)
전화: 464-8711~2

이 인쇄물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것임.
• 제작자: 민주당 동구지구당
• 인쇄소: 늘사랑 인쇄소
주소/ 부산 중구 동광동 5가 48-6
전화/ 469-8509

부산의 자존심! 역시 노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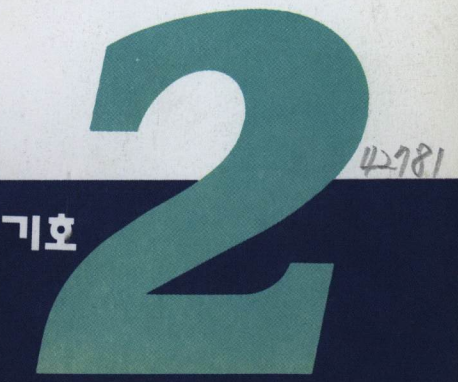


이곳 동구에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당당히 서고자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4년전, 우리앞에 나타난 꺼주구리한 그 촌놈!

처음에는 뭐할까 싶었지만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일 하는 변호사라기에,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의 편이라기에,
우리가 국회로 보낸 사람.
그러던 어느날.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조용조용한 경상도 사투리로
청문회 증인들을 아무지게 몰아부쳐
서민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풀어주던
우리 국회의원 노무현!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서민의 편에 서있었고,
우리 동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이제 야당을 개혁하겠습니다
정치풍토를 바로 잡겠습니다



은 국민이 동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번, 노무현을 큰 정치인으로!



집권당이 압승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요?

88년 4월 16일 당시 김영삼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절대적석을 차지한 집권당 안에서 안정이 있었느냐? 여당의 독주하에서는 부패만 탄생할 뿐 절대 안정이란 여야가 균형을 이룰때 달성될 것이다.”

그후 3당 통합된 거대 여당 민자당에서 수서비리, 서울방송 특혜시비, 현대 기부금 실종 등 온갖 비리와 부패만이 판쳤으니, 그 말은 진짜 맞는 말인가 봅니다.
진정한 안정은 여야의 균형에 있습니다.

**전국민이 기대하는 인물을 버리고
전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동구의 얼굴로 뽑으시렵니까!**

누가 진실로 국민을 위한 사람입니까?

정말 작은 일 하나부터 비교해 봅시다.
물가 때문에 국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선거때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릅니다.
지난번 13대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허삼수 후보처럼 돈을 썼다면 전국적으로 4조원의 돈이 풀리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후보들이 노무현이 처럼 했다면 그 이십분의 일 밖에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3대 총선시 저는 공약으로 5공비리 청산, 야권통합, 서민을 위한 정치를 내걸었고, 저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뜻대로 안되는 일도 많았고 더러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구에 나섰습니다.

지난 4년간 철새라느니, 동구를 떠난다느니 온갖 중상모략에 시달렸습니다. 동구에서는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로지 부산 시민과 동구의 자존심을 믿고 동구에 다시 나섰습니다.

왜 김영삼씨를 따라가지 않았는가?

따라가면 돈있고 권세 좋은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약속을 성실히 지켰을 뿐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저를 야당이라고 뽑아 주었습니다.

야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출고 배고프지만 누군가는 야당 할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이 국회의원 되는 것하고
김영삼씨가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노무현은 소신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지역당이나 개인의 정당이 아닙니다. 노무현은 김대중 대표에 맞서 할 말 다하고, 할 일 다하는 사람입니다. 노무현이가 떨어지면 진짜 지역당, 김대중당이 되고, 당선되면 민주정당, 개혁정당이 됩니다.

아무리 금뺏지가 좋다지만...

한때는 김영삼씨를 보고 “대권병자” 하더니 불과 4년 만에 “**위대한 지도자 김영삼 선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가 국민들이 정치인 보기를 사기꾼으로 보지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는 고쳐야 합니다.

**언제부터 김영삼씨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김영삼씨와 함께 할 것입니까?**

지난번 선거에는 노태우씨와 같이 찍은 사진으로 이번 선거에는 김영삼씨와 같이 찍은 사진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될 자신이 없는 겁니까?

이제 정말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역감정을 정치에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또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려 합니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지역감정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통일시대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노무현은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선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통합을 이룩했습니다.

인신공격, 중상모략, 이런 비열한 짓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충신들이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죽어 갔습니까?**

정치가 달라지려면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3월 24일, 투표일! 전국민은 부산동구를 지켜볼 것입니다
바로 그날 노무현을 화끈하게 당선시킵시다.**